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 협의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U.S.A.

KSC, 협의체에서 위원회로 탈바꿈...은사적 쇄신 위한 재도약 **이창재 부제 회장 연임, "은사적 쇄신 운동의 기수로 앞장서 나갈 것"**

KSC 총회에서 이 창재 부제가 회장으로 연임되고, 회의 명칭이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협의회”에서 “가톨릭 성령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로 변경됐다.

지난 6월 4일 저녁 9시 뉴저지 Holiday Inn, Harmon Meadow 에서 열린 2004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18명의 위원들은 회장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협의체에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KSC의 면모를 쇄신했다.

KSC 제2기 회장에 재선된 이창재 부제는 KSC가 각 지역 봉사회와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력 하기 위하여, 남가주 봉사회와 동북부 봉사회장을 계속 KSC 부회장에 선임했으며, KSC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여자 부회장을 선임해 여성 봉사자의 비율을 반영했다.

한편, 총회는 지난 해 결산을 승인하고, 그 동안 시행한 자원 봉사자에 의한 운영 체제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젊은 봉사자의 양성과 영입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KSC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 KSC 소식지 (격월간)를 계속 적시에 발간 발송하고, <http://kscusa.org> 에 모든 은사적 쇄신 정보를 입력 보존, 홍보한다.
- 2000년판 LSS 새지침서에 의한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직접 보급하고, 봉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새 교재(요약본)를 발간 배포한다.
- 한미 성가정 세미나를 계속함과 동시에 각 도시에 한미 가정선교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한다.
- 대학선교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한인 청년, 학생 신앙대회’를 10월 2일(토) 보스톤에서 개최한다.
- 복음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선교의 모후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고양하고, ‘복음선교의 모후’이시며, ‘아메리카 대륙의 모후’이신 과달루페 성모님과 함께 선교 순례를 계속한다.

2004 쇄신 세미나 일정

7/29-31	Dallas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민 라파엘 (214-437-8784)
8/7-8	남가주 봉사회; 남가주 성령대회; 조 구룡 회장 (909-592-6141)
8/20-23	중남부 봉사회; 제 4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강 부성 스테파노 회장 (979-862-9158)
8/21	북가주 봉사회; 북가주 성령대회; 이 찬용 회장 (650-368-2206)
9/3-5	Vancouver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이 세실리아 (604-986-3722)
10/2	KSC; 미주 한인 대학생 신앙대회 (보스톤); 황제임스 (978-287-0201), 송지혁(206-963-7845)
10/22-24	중북부 봉사회; 중북부 성령 대회; 이 지훈 베드로 회장 (847-255-6902)
11/3-7	KSC;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 사무국 (253-223-8775)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쇄신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6월 4일 뉴저지에서 열린
2004년도 KSC 정기총회에서 제가
다시 회장에 선임되어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KSC를 위하여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건강한 모
습으로 KSC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느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한 저
를 성원해 주신 동료 봉사자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KSC 새 회장 선임을 위하여 기도하신 미주 쇄
신가족들에게 주님 안에서 헌신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KSC 를 위하여 투신하
실 부회장과 임원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자원 봉사자들을 영입하여 KSC가 더 젊어지고 활
력이 넘치는 봉사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임된 임원 가운데는 KSC 역사상 처
음으로 여자 부회장이 두분 선임되었는데 전국 상황예
서 볼때 여자 봉사자들의 활약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 총회 선임 KSC 봉사자 임원 명단

- 회장: 이창재 부제
- 자문위원: 박창득 몬시뇰, 김택구 신부, 박용일 신부, 이태우 신부, 정광호 신부
- 부회장: 남가주 봉사협의회 회장(조구룡)
동북부 봉사협의회 회장(임문수)
김정자(KACC), 안희숙(동남부)
- 감사: 신철야 부제(OH), 이관우 부제(NJ)
- 운영위원 (선출 위원): 백성화(SC), 송광연 부제(CA), 송지혁(NY), 신정자(OH), 이구성(NJ), 이마리아(VA), 이은경(WA), 이찬용(CA), 이천균(OH), 이택(WA), 임문수(NJ), 최옥진(MD), 최은복(CO), 황제임스(MA), 현정인(WI)
- 사무국장: 이은경(WA)
- 사무차장: 송지혁(NY)
- 전문위원 (위촉): 복음선교-이창재 부제
대학선교-황제임스
기도-김정자
전례-최옥진
한미가정선교-이마리아
홍보출판-이택
성모신심-이관우 부제, 남홍익

- 성지순례-신정자
- 후원회 총무(위촉): 대표총무(운영위원)-윤석린
지역총무-각 공동체 대표

**10월 2일, 1차 한인 청년 학생 신앙 대회
젊음! 보스톤에서 만납시다**

KSC는 대학 선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한인 청년 학생 신앙대회’를 10월 2일(토) 보스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교회 쇄신의 젊은피 수혈을 위해 열리는 이번 청년 신앙 대회는 특히 KSC의 청년 봉사자들이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기존의 성령대회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성령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SC에서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며, 처음으로 열리는 청년 성령대회가 젊은 신앙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는 황 제임스(KSC 운영위원; 보스톤 617-388-1945), 송 지혁(KSC 사무차장; 뉴욕 206-963-7845), 이 은경(KSC 사무국장; 타코마 253-223-8775) 등이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말까지 접수된 후원금 내역)	
박 프란체스카 (MD)	\$500.00
라스 베가스 기도회(NIV)	\$100.00

KSC가 왜 설립됐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새로 개정된 정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 2조(목적):

이회는 미주 가톨릭 은사적 쇄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사적 쇄신 한인 봉사자의 쇄신과 친교, 각 지역 봉사 협의회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미주의 모든 은사적 쇄신 한인 공동체(기도회, 봉사센터, 봉사 협의회)의 발전과 일치를 통하여, 미주 한인공동체의 은사적 쇄신을 촉진함은 물론, 나아가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모조여 두다.

기쁨과 눈물, 찬양과 환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느님의 사랑 잔치

2004 동북부 성령대회를 마치고

임 문수 마르꼬, 동북부 봉사회장

지난 6월 5일(토) - 6일(주일) 양일간 뉴저지 유니온 시티에 소재한 Park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성령 은사적 쇄신 동북부 봉사회(회장 임문수, 지도신부 박용일)가 주최한 성령대회 2004가 초청된 타 봉사회 봉사자들과 미 전역에서 모여 온 연인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말씀과 성사(성체)의 신비로운 조화를 통한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의 풍요로운 잔치로 성황리에 마쳤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루가복음 7:1-10 참조)를 주제로하여 글라라회의 브릿지 메켄나 수녀와 복음선교 동역자인 빈센트회의 케빈 스켈란 신부를 강사로 초청한 동 대회는 성령대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강의위주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 말씀과 성사(성체)가 살아있는 가톨릭 신앙의 정통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목주의 기도 및 자비의 5단 기도 등 흔히 단조롭고 형식적인 기도로 보여지기 쉬운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가 성령의 현존 속에 봉헌하는 형제 자매들의 살아 숨쉬는 기도로 바뀌는 “보기에 좋은” 모습이였다.

브릿지 메켄나 수녀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주셨으니, 이 성체와 성혈은 당신 자신이며 주님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귀하고 좋은 선물은 없다. 그러므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가톨릭 신자는 누구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하느님과 하나 됨을 확신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확신에 차 가르쳤으며, “사람들이 나를 ‘치유자’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르면서 치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에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기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왜 그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지 않는가?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믿고 청하기 때문에 그 청이 들어지는 것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였다.

케빈 스켈란 신부는 자신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 형식적인(?) 성무일도를 줄 줄 읽은 후 무심한 마음으로 감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눈에 빙그레 웃으시는 예수님의 상반신이 보였는데, 놀라기는 커녕 웃으시는 그분께 ‘왜 나를 보고 웃으십니까?’ 하고 따지듯 묻는 자기에게 ‘항상 불평만 늘어 놓는 너의 모습을 보고 어찌 웃지 않겠느냐?’ 고 하

시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늘어 놓는 그 자질구래한 불평들이 아니고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원한다면 매일 만날 수 있고 직접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어데를 그렇게 찾아 헤메는지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라고 개탄하였다.

강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삶으로 살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가르침들에 크게 감동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성령의 은사적 능력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이 있을 후 봉헌된 대회미사가 그리고 받아 모시는 성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웠고 주님의 현존감이 깊이 느껴지는 은총과 축복이었음을 이구 동성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에서 초대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찬미의 시간과 체험을 통한 하느님 증거, 청년들의 감동적인 나눔들, 성체조배의 시간, 연극, 성체를 통한 치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또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독특한 감동과 깨달음, 기쁨과 눈물, 찬양과 환호를 연속케한 “하느님의 사랑의 잔치”였음을 증명하였다

작은 나눔 큰 기쁨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HQ Office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독자 투고 체험기... 내가 만난 하나님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김 광남 주리안나, 필라델피아 본당

1973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온 후 78년쯤 성령 피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사치를 좋아하는 제 세속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가끔 본당에서 하는 은혜의 밤등 찬양의 기회가 있어도 성당 기둥 뒤에 앉아서 손뻐도 치지 않고 손도 들지 않으면서 찬양대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참석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 완벽주의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외모가 무척 중요했으며 저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주 부딪쳤고 이로 인해 시어머님과 두 아들들은 늘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골프를 좋아했던 저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온종일 머리 속에는 골프공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만의 만족만 채우며 살았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가던 94년 겨울, 주일 날,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자꾸만 어지러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미사 도중 퇴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올 것 같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온 몸 전체가 흔들리면서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내과, 신경 내과, 정신과까지 다녀 보았지만 의사도 병명을 알 수 없으면서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꼭 죽을 것만 같은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한 달 이상을 지내던 어느 날, 제 동서가 “형님,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봐요. 그 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 기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하면서 저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동서는 작은 책자의 치유 기도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저더러 따라 하라기에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낮게만 해주시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겠어요.”라고 마음 먹고 따라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울고 있던 저는 통곡과 함께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심령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저는 성모님께서 바로 제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날, 시어머님이 멕시코 ‘과달루페’성지 순례를 떠나셨는데, 침대에서 몸을 떨면서 일어 나지도 못한채 다녀오시라고 전송을 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시각에 시어머님께서도 성모님께 기도하시면서 매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던 제가 잠을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아침이었는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제 몸이 정상이 되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혼자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깡충 깡충 뛰었습니다. 단숨에 아랫 층으로 뛰어 내려와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셨군요.”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줄리아, 나는 네 음성을 들어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단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종일 지금까지 제가 살아 온 날들을 되돌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아침 미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모상 앞에서 ‘Good morning’ 인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로 가서 ‘I love you’ 하면서 발에 뽀뽀를 해드린 후 성당으로 향합니다. 4년 전 부터는 제 남편도 뽀뽀해 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 말씀이 궁금해져서 읽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 한 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5년이나 걸렸지만 필사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6살이 더 많은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대들었던 저를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때부터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말도 존대 말로 바뀌어 졌습니다. 어찌다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하시는 주님을 떠올립니다.

식구들이 모두 기뻐하고 집안이 화목해지니 주님께서 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 것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하신 성서 말씀에 따라 기도회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회가 있던 날, 벅찼던 감사와 열정을 털어 놓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체면 같은 것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본당의 성령 피정이나 은혜의 밤 같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앞장 서서 춤추며 찬미드립니다. 성령 피정의 기회로 변화되는 형제 자매님의 모습을 볼 때가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때마다 성체 조배와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죄인이던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